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은 미술관에 왜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나 조각 등 예술 작품을 직접 보고 감상하기 위해 갑니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미술관에서는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전시실 구석구석에는 흥미로운 사실들도 많고요. 이 책 《미술관에 대한 모든 것》은 알고 싶고 궁금한 미술관에 대한 모든 것을 뛰어난 그림과 함께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최초의 미술관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또 시대에 따라 미술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미술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 미술관 전시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은 어디로 가는지, 작품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등 미술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줍니다. 접힌 페이지를 양옆으로 펼치면 미술관 안의 모습이나 전시회 장면을 커다란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고, 유명 명화와 현대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찬찬히 한 페이지씩 따라가다 보면 제목 그대로 ‘미술관에 대한 모든 것’을 전시하는 알차고 흥미로운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서 미술관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에 가장 중심이 되는 창작 활동입니다. 창작 활동도 중요하지만, 미술 감상의 눈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과 그 감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미술 감상에 대한 교육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육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지식을 쌓고, 예술에 흥미를 갖고, 세상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길 기대하면서요. 《미술관에 대한 모든 것》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미술관이 하고 있는 여러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는 안내서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감상하다 보면 미술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주변이 예술로 가득하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 대한 모든 것》을 읽고 나면, 미술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한데 모아 펼쳐 놓고 색깔별로 나눠 보거나, 주제별로 나눠 보거나, 작품에 사용한 재료별 등으로 나눠 보면서 작품 ‘큐레이팅’을 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큐레이팅한 작품들을 거실 한쪽 벽이나, 기회가 된다면 아파트 복도, 지역 도서관에도 전시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들은 창작가도 되고, 큐레이터도 되고, 전시 설치가도 되어 보고, 더 나아가 생애 첫 전시를 마친 예술가도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세상 밖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상한다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질 거예요. 이 책을 통해 미술관에 대한 모든 궁금증도 알아보고, 우리 모두 꼬마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해 보세요.

이슬(대전 용운초등학교 교사)

그림을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판화, 북 아트, 일러스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의 힘을 품은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알록달록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 미국 Pacific Northwest College of Art 공예학 석사(MFA in Craft)
- 《비를 내리는 구름, 클로디》 쓰고 그림, 《북극여우 리사》 그림



미션 1 : 표지를 살펴봐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표지 속에 그려진 사람들은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그림들도 살펴보고, 무슨 그림일지 상상해 보세요.
모두 미술관과 관련 있답니다.

이 사람은
무얼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은
무얼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은
무얼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은
무얼 하고 있나요?



온드르제이 크로바크 · 로스티슬라프 코리차예크 · 마르틴 바네크 글 다비트 뵘 · 이르지 프란타 그림 한지희 옮김

주니어 **RHK**

미션 2 : 세계 여러 미술관을 알아보아요



8~9쪽을 보면, 최초의 미술관부터 현대와 미래의 미술관까지 세계 여러 미술관이 소개돼 있습니다. 책을 찬찬히 읽어 보고, 아래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 보세요.

1. 은 고대 조각품들을 모아 카피톨리노 언덕에 전시한 곳으로, 미술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미술관이에요. 원래는 프랑스 왕의 숙소였답니다. 유리 피라미드 건물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유명해요


3. 은 철근과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보기 드문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주목받았어요. 이곳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평범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엔진과 그림과 조각들을 나란히 전시하는 식이었어요. 영국 런던에 있어요.

4. 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미술관으로, 뉴욕에 있어요. 이곳은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5. 는 전세계 주요 미술관의 작품들을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가상의 미술관이에요. 이곳에서 소개하는 미술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볼 수 있지요. 물론 전시품을 손으로 만질 순 없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세계 미술관은 어디인가요?
미술관으로 가는 여행 티켓을 완성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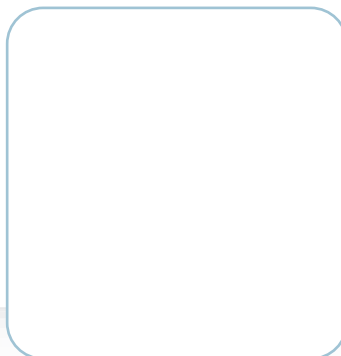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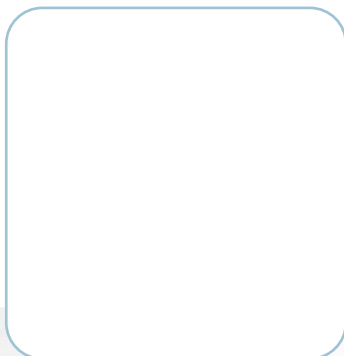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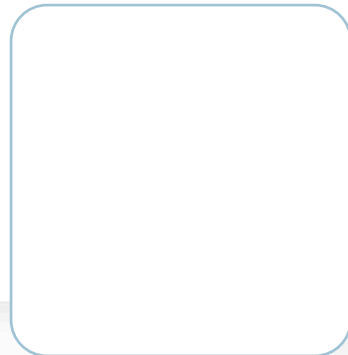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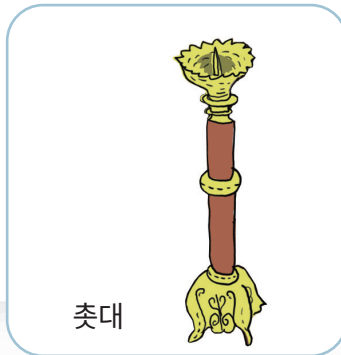


출발 <input type="text"/>	도착 <input type="text"/>	승객 이름 <input type="text"/>
가고 싶은 이유 <input type="text"/>		함께 가는 승객 이름 <input type="text"/>

출판사: (주) 북폴리오 | 편집: 북폴리오 | 디자인: 북폴리오 | 인쇄: 북폴리오

미션 3 : 나만의 쿤스트캄머 전시하기

10~11쪽을 볼까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는 프라하 성에 '쿤스트캄머'라는 '예술의 방'을 만들었어요. 이 방에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이하고 희귀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이 쿤스트캄머를 만든다면 무엇을 전시하고 싶나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소중한 것, 신기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해 보세요.



미션 4 : 재고 색인 카드 만들기

여러분의 쿤스트캄머를 만들어 보았나요?
 미술관에서는 수많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이 전시한 물건이 미술관에 보관된다면,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한 '재고 색인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쿤스트캄머에 전시한 물건 중 두 가지를 골라 재고 색인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본문 36-37쪽을 참고하세요.)



• 재고 색인 카드 #1

작가 이름 :	작가의 출생 연도와 출생 장소 :		
작품 제목 :	재고번호 () 작품이 있는 장소 :		
작품 그리기	작품 크기 :	재료 :	만들어진 연도 :
	작품 설명 :		
	상태 : 좋음 / 보통 / 나쁨		현재 작품 위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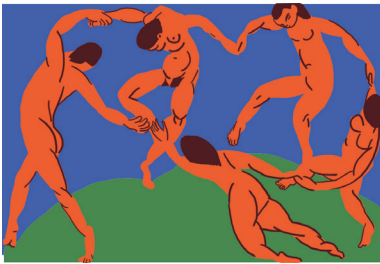
• 재고 색인 카드 #2

작가 이름 :	작가의 출생 연도와 출생 장소 :		
작품 제목 :	재고번호 () 작품이 있는 장소 :		
작품 그리기	작품 크기 :	재료 :	만들어진 연도 :
	작품 설명 :		
	상태 : 좋음 / 보통 / 나쁨		현재 작품 위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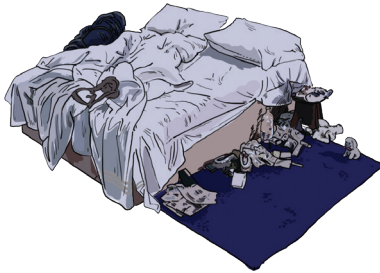
미션 5 : 미술 작품 감상해 보기



이래 보이는 그림들은 실제 화가들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작품의 제목과 작가 이름을 써 볼까요? 본문 52~61쪽을 참고하세요.
 다 썼으면, 이제 아래 그림 카드를 점선을 따라 오려 보세요. 다음 활동인 <미션 6>은
 이 그림 카드를 활용해 여러분이 직접 큐레이터가 되어 보는 거예요.



제목 :
 작가 이름 :



제목 :
 작가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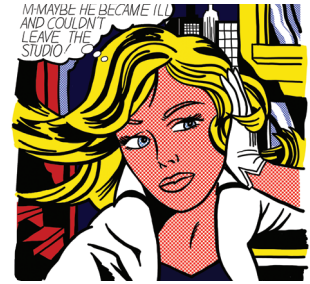
제목 :
 작가 이름 :



제목 :
 작가 이름 :



제목 :
 작가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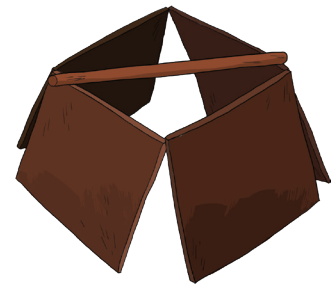
제목 :
 작가 이름 :



제목 :
 작가 이름 :



제목 :
 작가 이름 :



제목 :
 작가 이름 :

미션 6 : 나는 큐레이터!

모든 전시는 큐레이터의 훌륭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미션 5>를 마치고 난 다음, 그림 카드로 전시회를 계획해 볼까요?

미션이 조금 어렵나요? '구글 아트앤컬처(Google Arts&Culture)'를 검색해 보면 전시회에 어울릴 수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아트앤컬처는 주요 미술관, 박물관과 제휴하여 전 세계의 소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상 미술관입니다. 구글 아트앤컬처 -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1. 여러 주제로 그림 카드를 분류해 보면서 전시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 전시회 주제 :

2. 전시회 주제를 정했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멋진 제목이 필요해요. 전시회 제목은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한 전시회 제목 :

3. 전시회에 사용할 작품은 무엇인가요? 작품의 제목과 작가 이름을 써 보세요.

4. 전시회에 함께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나요? 작품의 제목과 작가 이름을 써 보세요.

미션 7 : 전시회 포스터 만들기



전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전시회 소식을 알려야겠지요?
전시회 소식을 알릴 멋진 전시회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포스터를 만들 때는 전시회 제목, 날짜, 장소, 전시 내용을 꼭 넣어 주세요.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안내서

《미술관에 대한 모든 것》은 제목 그대로 미술관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해 줍니다. 아래 일곱 가지 미션 활동지를 끝낸 뒤에는 가까운 미술관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고, 어린이들이 만든 작품으로 멋진 전시회를 기획해 보는 것도 좋아요.

미션 활동에 앞서

이럴 때 읽어 보세요.

- 미술관의 역사가 궁금할 때
- 재미있는 전시회에 다녀와서 전시회가 궁금할 때
- 미술관과 관련된 여러 직업이 알고 싶을 때
- 왜 미술관에 가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못 느낄 때
- 미술관에 가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을 내용이 궁금할 때

책을 읽기전에

미션 1 : 표지를 살펴봐요

《미술관에 대한 모든 것》의 표지를 보면 곳곳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도 보이고, 조각상이나 작품 운반차, 미술관 건물 등도 보이지요. 표지 속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미술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표지에 등장한 사람들이나 작품을 본문 속에서 찾아보며 ‘미술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2 : 세계 여러 미술관을 알아봐요

본문 8-9쪽에는 세계의 여러 대표 미술관이 있습니다. 글이 많아서, 처음부터 어린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입장부터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미션 2>에서 정리한 다섯 개의 미술관을 먼저 알려 주셔도 좋아요. 전세계 미술관 중에서도 대표적인 미술관들입니다. 빈칸을 채우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미술관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미술관이 있다면 해당 미술관의 웹사이트에 가서 가상체험을 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고 싶은 미술관이 있다면 그 미술관이 있는 나라와 도시를 조금 더 알아보고 비행기표를 만들어 보며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껴 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3 : 나만의 쿤스트캄머 전시하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가 프라하 성에 만든 ‘쿤스트캄머’처럼 나만의 쿤스트캄머를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본문 10~11쪽을 참고해 보세요. 쿤스트캄머에 전시하고 싶은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에게 어떤 물건이 소중한지, 어떤 기억이 남아 있는지 등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 그린 활동지를 벽에 걸어 두거나,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물건들을 집 안에 전시해 보는 것도 좋아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4 : 재고 색인 카드 만들기

예술 작품을 보관할 때 필요한 작업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미션 3>에서 만들었던 쿤스트캄머 중에 미술관에 오래오래 보관하고 싶은 물건들 중 두 가지를 골라 '재고 색인 카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에요. 본문 36-37쪽의 재고 색인 카드를 참고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물건에 대한 색인 카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5 : 미술 작품 감상해 보기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시대별로 알아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아이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미션 5>를 진행하면서 그림을 찾고 작품의 제목과 작가 이름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구글 아트앤컬처 사이트'에서 그림을 검색하면 크고 자세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림 카드가 완성되면 카드를 잘라 주세요. 그림 카드는 <미션 6>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책을 읽고 나서

미션 6 : 나는 큐레이터!

앞에서 오린 그림 카드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분류해 보도록 안내해 주세요. 색깔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설치미술이나, 회화 작품이나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겠지요. 어린이가 떠오르는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분류해 보는 활동입니다. 그렇게 분류한 그림 카드로 전시회 주제와 제목을 지어 보세요. 그림 카드 9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가상 미술관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전시회에 함께 소개하면 좋을 작품이 있을지 찾아보아도 좋아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7 : 전시회 포스터 만들기

전시회를 열기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스스로 전시회 주제를 생각하고 전시회에 들어갈 작품들을 정했다면 이제 전시회를 홍보하는 단계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 포스터를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디자인한 멋진 포스터를 가족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 주세요. 어린이가 직접 큐레이팅한 전시회를 보면 아이의 자존감도 높아질 거예요.



아이들의 '예술 문해력'을 높이는 MoMA 꼬마 예술가 그림책 (전 8권)

'세계 3대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이 기획한
어린이를 위한 예술 그림책 시리즈!



사만사 프리드만 외 글 | 클라스 베르플랑케 외 그림 | 장미란 외 옮김

- 01 꿈꾸는 꼬마 건축가 02 마티스의 정원 03 꼬마 영화감독 샬롯 04 꿈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
05 드가의 산책 06 소니아 들로네 - 색이 들려주는 이야기
07 쿠사마 야요이 - 점, 무한의 세계 08 마시모 비넬리의 뉴욕 지하철 노선도



- 회화, 건축, 영화,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장르 소개
- 앙리 마티스, 르네 마그리트 등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 화가 특유의 화풍과 기법을 재현한 풍성하고 수준 높은 일러스트
- 예술가의 창의력과 열정 가득한 이야기를 통해 '예술 문해력' 쑥쑥



* MoMA(뉴욕 현대미술관, The Museum of Modern Art)는 1929년 건립된 이래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건축, 디자인, 사진, 영화 등 약 2만 점이 넘는 작품이 전시 및 상영되고 있는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블로냐 라가치상 예술 부문 스페셜 멘션 수상작

최초의 미술관부터 전시회가 열리는 과정까지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완벽 가이드!

알고 가면 100배 더 즐거워지는
미술관 가기 전 필독서!

온드르제이 크로바크 외 글 | 다비트 뵘 외 그림 | 한지희 옮김 | 64쪽

